

같은 상황 다른 해석 사춘기 아이와 엄마의 동거이몽

CASE 1 학원에 다녀와 즐기고 있는 아이를 혼내는 상황

학업 의지, 도대체 얼마면 되니?

도대체 공부할 의지가 저렇게 없을 수 있어? 저러니 성적이 늘 그 모양이지. 학원만 갔다오면 즐기고 있네. 뭐가 그렇게 힘들어, 대한민국에 힘들지 않은 학생 있어?



지금 몇 시인데 벌써 자?
뭐가 피곤하니?
그렇게 공부 안 하면
고등학교 가서 어떡하려고?
대학 떨어지고 나서
후회하지 마!

알아서 해요!



내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'저주'만 하니 싫어

뭐가 피곤하냐고? 아빠도 나처럼 매일 하루 12시간 일하진 않지. 게다가 주말에도 내내 학원, 숙제인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. 우리 엄마 늘 나한테 대학 못 갈 거라고 '저주'를 해. 내가 대학 못 가면 엄마 탓이야.

**손정자
작가의 조언**

아이를 대할 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. '학생이니깐 이래야 한다'보다 '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'라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. 아이를 엄마와 다른 세대의 개체로 인정한 뒤 아이의 상황을 공감해주며 '피곤해 보이네. 공부하느라 힘들지?'라고 하면 아이의 반감은 줄어든다.

CASE 2 난장판인 아이의 방을 보며

사춘기라고 참아주니 점점 더 버릇 나빠져

애가 자기 방 청소도 못해. 공부도 못해. 착하기라도 하면 몰라. 왜 말끝마다 짜증인지.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, 사춘기라고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? 참아주는 게 맞기는 한 건가? 이대로 버릇없는 태도가 굳어져서 어른이 된 뒤에도 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 아냐?



윗집 아이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도 돕더라. 넌 네 방 청소도 못해?

알았다고요!!



넌 왜 그렇게 못했니?
왜 그리 고함을 질러?
버릇없이.

제발 비교 좀 하지 말아줘

제일 듣기 싫은 말이 다른 애와 비교하는 건데, 엄마는 매번 다른 애와 비교해. 엄마 잔소리를 들으면 공부하려다가도 하기 싫어져. 어차피 나한테 못됐다고 하는데 뭐. 참을 필요 없잖아. 난 못된 애네. 볼 때마다 화만 내는 엄마 정말 싫어!

**손정자
작가의 조언**

사춘기 아이는 타인의 감정을 왜곡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. 엄마가 큰소리로 지시하면 아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린다. 먼저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 뒤,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엄마의 감정을 '걱정되네' '치웠으면 좋겠다'라고 표현해야 한다.

사춘기 아이의 속마음은 굳게 걸어 잠근 아이의 방처럼 알 수 없다. 어떤 질문을 하든지 “알았어”나 “몰라” 둘 중 하나로만 대답하는 아이. 그 이면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. 아이들은 아이들대로,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. 하나의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들의 속마음. 들여다봤다.

취재 김지연 리포터 nichts29@naeil.com 도움말 노미애 작가(〈내편이 되어줄래〉 지은이) · 손정자 작가(〈사춘기 심대들과 소통하는 법〉 지은이)

CASE3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당부하는 상황

**민고 기다려주라고?
믿게 해야 믿지!**

아무래도 오늘 또 친구들이랑 PC방 갈 것 같은데? 지난번에도 PC방 갔다 들켰잖아.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. PC방에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?

오늘 수업 일찍 끝나지?
일찍 끝났다고 지난번처럼
또 PC방 가면 안 돼.
가기만 해봐.

알았다고요.

PC방 가지마!

**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이
더 깊이 각인돼**

아침부터 잔소리를 들으면
기분이 상해, 잘 다녀오라는
말 한마디면 충분한데.
난 PC방 갈 생각도 안 했던 말야.
아침부터 PC방 얘기만 하니
듣기 싫어.
PC방, PC방! 이따 PC방 갈까?

**노미애
작가의 조언**

아이의 잠재력을 믿어라. 아이는 믿는 만큼 자란다. 엄마의 불안함은 아이에게 전이된다. 엄마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아이 머릿속에는 그 안 좋은 이야기만 남게 된다.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 아이는 잘 자란다.

CASE4 시험 일주일 전. 아이가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들킨 상황

**톱스타 매니저 같은
엄마를 둔 걸 고맙게 알아야**

또 휴대전화 보고 있네!
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배터리
떨어진 전화처럼 잠만 잘 테고,
엄마인 나만 열성적으로 설명회에
다니지. 톱스타 매니저도
이보다는 못할 듯. 우리 엄마가
이렇게 뒷바라지해줬다면
난 성공했을 거야.

지금이 얼마나 중요한
시기인데 휴대전화를 봐
지난번 기말고사처럼
또 시험 망칠거야?
정신차려!

몰라요.

**내 성적 말고 엄마 인생에서
보람을 찾았으면**

정말 이해가 안 돼. 엄마는 왜
이렇게 내 성적에만 집착하는지
모르겠어. 내 공부, 내 성적인데
그걸 엄마 인생의 성적표라고
생각하는 것 같아. 엄마가 어려서
공부 안 한 한을 왜 나한테 푸냐고!
나 말고 엄마 인생에서
보람을 찾으면 좋겠어. @

**노미애
작가의 조언**

엄마가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. 요즘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지침들이 강연이나 육아서에 넘쳐난다. 한데 이런 형식에 매여 화가 날 때도 참으면서 버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 취미, 독서, 사교 등으로 엄마가 행복해지면 아이한테 행복을 줄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.